

# 교회소식

2019. 8. 4. 105호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생일: 김은혁(8/3) 방문: 유태규 성도 가정
2. 창립2주년 예배는 야외예배 (Dollar Lake 주립공원, 8/11 10AM)  
"오라,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2-5
3. 어린이교회 특송 연습 : 주중에 한 번 모입니다.
4. 어린이교회 달란트 시장: 8월 18일 주일예배 후
5. 가을 정기 노회 안내 : 9/ 9-11 (밴쿠버지구총교회)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75
감사 헌금	CD \$90
장년 출석	15명
어린이 출석	18명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 주는  
다트머스 한인 교회 재정 보고서

2019-07월

구분	항목	2019-07-07	2019-07-14	07/21/19	07/28/19	합계
수입	주일헌금	220	886	205	165	\$1,476.00
	개인도네이션					\$0.00
	기타	1547.79				\$1,547.79
						<b>수입합계 \$3,023.79</b>
지출	사무용품					\$0.00
	친교음식준비	34.15	40.82	43.29		\$118.26
	건물렌트비	200				\$200.00
	기타	100	155.67		106.7	\$362.37
						<b>지출합계 \$680.63</b>
						<b>총합 \$2,343.16</b>

2019년 6월 이월금

구제헌금:\$50  
선교헌금:\$50

어린이 교회 부비데이 티켓:\$87.78  
부비데이 간식(피자):\$67.89

어린이 교회 간식:\$37.60  
7월 생일 선물&케익:\$47.39  
교회 주말 옴공:\$21.71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이월금	250	250	5월	50	50
1월	50	50	6월	50	50
2월	50	50	7월	50	50
3월	50	50	합계	150	150
4월	50	50			
총합	450	450			
구제/선교 헌금 \$900 (사스카촌 교회 헌금함)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http://www.dartmouth-k-church.com)

# 주일 예배 순서

# 목회자 칼럼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다함께
성경봉독	요 6:5-13	김승용목사
어린이설교	어린이의 드림	김승용목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마 8:23-27	다함께
설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다함께
축도		김승용목사

지난 겨울 한국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수많은 긴급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을 막자는 원인근절의 방법과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직접적인 방법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대응책에 당연하게도 숨을 쉬지 말자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우리가 숨을 쉬지 않을 수 없기에 초미세먼지를 격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코미디같은 이런 일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큰 20년을 교회에서 사역을 해 오며 성도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나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네, 물론 숨을 쉬지 않을 수 없지만 교회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결여되어 있기에 단순히 교회만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문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 놀라운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후손을 바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미 노인인 시나이로 문제와 싸워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고보서 1:2-4에 시험(문제)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동안 우리의 자세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자 피트니스 클럽이 자연스레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너도 나도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을 하지만 도중에 포기하고 멤버십비용만 날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기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트니스 클럽에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의 시간 속에 평안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조금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참고 기다리는 중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가운데 조금했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풍랑 가운데에도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문제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매일 우리가 탄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배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며 이 배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저 풍랑도 결국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누리십시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 (어린이교회) 요한복음 6:5-13

-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2)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3)있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3)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3)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찻더라

## 마태복음 8:23-27

-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되 예수께서는는 주무시는지라
-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